

기획특집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이전과 제주도의 과제

다음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실장 한 동 현

지난 4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 이전을 시작한지 만 10년을 맞았다. 2004년 4월 16명의 선발대를 시작으로 매년 제주에 내려와 근무하는 직원 수가 증가하여 2014년 4월 기준 제주 근무 직원은 자회사를 포함해 전체 900명을 넘어섰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방 이전 기업의 사례로는 유례가 없는 규모다.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 10년의 역사가 그리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이전기업으로써 누구도 뵈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지도도 없이 헤쳐 나간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였고,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를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새로이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불안한 일이었다. 다음에 있어 지난 10년은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제주 이전 10년을 되돌아보고 제주의 가치와 과제를 간단히 짚어 보고자 한다.

왜 지방 이전인가

다음의 제주이전을 시작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다음이 제주로 내려오는가’이다. 아무도 지방이전을 생각하지 않던 10년 전

시점에서는 당연한 질문이겠으나, 많은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진행하고 있고 더욱이 중앙부처와 관공서까지 지방으로 옮겨가는 현재까지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울 중심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사고의 기저에는 서울 이외에는 성공의 기회와 안락한 풍요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다음의 지방이전 꿈이 시작된 계기는 2003년 4월 어느 아침의 간담회 자리였다. 다음의 창업자이면서 당시 CEO였던 이재웅 대표는 각 팀 별로 돌아가며 조찬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미팅 시간은 아침 8시 30분. 이 미팅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 30분 이상 지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의 변명은 이런 것이었다. ‘인천 부평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9시 정상 출근이야 괜찮지만 8시에 출근하려면 5시 반에는 준비하고 집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버스를 한번 놓치는 바람에 늦었다.’

이재웅 대표는 그날로 조찬 간담회를 중단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 절반인 4시간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였다. 출근하여 자리에 앉고 나면 벌써 몸은 지쳐 있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장거리 퇴근으로 인해 집에서도 개인적인 여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직원의 창의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IT 기업에서, 직원 개개인이 적절한 휴식과 리프레쉬를 통해 재충전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다 심각한 것은 서울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개인의 출퇴근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IT 기업의 평균 연령은 30세 전후이다 보니 기혼자는 대부분 맞벌이일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자녀 보육 문제가 제기되는데, 맘 놓고 아이를 맡길 환경이 여러모로 부족하다.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면 좋겠으나 역시 서울에서는 해결이 난망하다. 사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먼 출퇴근 길에 어린 자녀들까지 고생이고 그렇다고 서울 각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관리 비용으로 인해 개인 업무공간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기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그런 창의적인 업무 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당시 경영진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는 직원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개개인이 행복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다음의 제주 이전 목표는 명확하다. 즉 '우리에게 맞는 가장 창의적인 업무 공간,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공간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나 가능하다.

제주를 선택한 이유

지방이전을 결심하고 나서 여러 도시들이 검토되었다. 가깝게는 춘천, 인천부터 대전, 전주, 경주, 제주 등이 대상이었다. 춘천과 인천 두 도시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제외되었는데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만큼 직원들이 주거 이전을 미룸으로써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전주, 경주 등은 환경은 좋으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었다. 다음은 서울을 떠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서울에서 발생되므로 서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행기로 50분이면 다다를 수 있는 제주는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접근성은 가장 뛰어나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도의 위상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글로벌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변방이면서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서 국제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 현재 가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가 제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도 중요한 요소다. 어디서든 15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산과 바다가 있다는 점은 어느 지방도 갖지 못한 수혜이고 그 산과 바다가 절경이라는 점은 더욱더 그렇다.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준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제주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 이전 프로젝트 '즐거운 실험'

다음의 제주이전 프로젝트 명은 '즐거운 실험'이었다. 우선 실험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지방이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실험이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에 테스트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지방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서울의 한계를 극복하고 IT 기업에 맞는 창의적 사무 환경이란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왕 하는 실험이라면 '즐겁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에 맞게 신나고 즐겁게 이번 실험을 진행해보자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즐거운 실험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팀 단위 실험으로써 2004년 4월 인터넷진흥화연구소(Net Intelligent Lab) 16명이 애월읍 유수암리 통나무 펜션에 등지를 틀었다. 직원들의 주거지는 신제주 연동이었고 출근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다. 통나무 펜션을 택한 이유는 서울의 환경과 대척점에 서있는 공간, 즉 자연환경에 폭 파묻혀 아무런 업무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2단계 실험은 1단계 실험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좀 더 규모가 큰 본부 단위의 지방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 6월 미디어본부 약 40명의 인원이 제주로 내려오게 된다. 2단계 실험은 유수암 펜션의 업무 환경과 비교를 위해 노형동 현대해상 빌딩을 임차하여 서울의 업무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사무실을 구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주요 주거지인 연동과의 출근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두 번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였다.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효과적인지), 그리고 IT 기업에 맞는 업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그것이다. 여러 번의 설문조사와 직원 인터뷰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제주의 업무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60%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업무 집중도가 서울에 비해 높아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었다. 지방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에게 맞는 창의적인 업무 공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도심을 벗어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업무 공간이 업무 집중도가 훨씬 높다는 것, 개인 업무공간은 가능하면 넓었으면 좋겠다는 것, 다양한 휴게 공간과 편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많은 회의실과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비되면 좋겠다는 것, 출퇴근 시간은 가능한 짧았으면 좋겠다는 것 등등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단계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2006년 2월 오동동에 연면적 1,500평 규모의 글로벌미디어센터를 준공하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다. 입지는 직원들의 주요 거주지인 연동과 가까우면서도 주변이 모두 숲과 밭으로 이루어져 우수암 팬션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 내부 공간은 직원들의 개인 업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강의장, 체력단력실, 탁구장, 무료 직원식당 및 카페, 빨래방(직원들의 빨래를 무료로 처리해준다), 농구장, 휴게 라운지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사내 복지를 강화한 업무 공간으로 구축되었다.

글로벌미디어센터의 최대 근무 인원수는 220명 정도로 계획하였는데, 연면적 1,500평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면적이 약 7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통상적인 1인당 면적이 2.2~2.5평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이러한 수준의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용의 3배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글로벌미디어센터의 입주와 동시에 추가로 직원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 다음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강제적인 이주가 아닌 직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이 그것이다(이러한 정책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희망자 위주로 제주에 내려올 경우 팀의 분리, 본부의 분리 등 조직의 이원화가 발생되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심의 제주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에 내려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 이전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다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소시켜 나갔다. 우선 인터넷 기업이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이메일과 메신저,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회의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모든 회의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또한 서울 - 제주

간 출장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러한 결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만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미디어센터 입주 후의 만족도는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만족도는 제주 근무 직원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져 2006년 133명이었던 것이 2011년 말에는 259명으로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강제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즐거운 정착, 제주의 가치

다음은 제주 근무 인원 증가에 따라 사옥의 확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글로벌미디어센터는 주변의 사유지로 인해 더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JDC와 첨단과기단지 4개 필지 38,000평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캠퍼스 구축을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물로 2012년 3월에는 첫 번째 사옥인 스페이스닷원(Space.1)을 오픈, 본사를 이전하였고, 2014년 4월에는 두 번째 사옥인 스페이스닷투(Space.2)와 직장보육시설인 스페이스닷키즈(Space.Kids)의 오픈을 완료하였다.

다음에서는 2012년 본사 이전을 기점으로 ‘즐거운 실험’을 종료하고 ‘즐거운 정착’을 선언했다. 이는 제주이전 프로젝트라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제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즐거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의 가치가 창의적 업무 공간 구축이라는 다음의 목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주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생활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생활에 만족하는 직원 비율은 2012년 90.3%, 2013년 91.3%에 달한다. 직원 대다수가 제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자연환경 29%, 업무환경 27%, 주거환경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제주는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으며, 높은 건물 임대료로 인해 누구나 만족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

는 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악명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으로 인한 주거 불만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014년 5월 말 현재 다음의 제주 근무 직원은 450명을 넘었고, 다음서비스를 포함하면 900명을 초과한다. 조만간 제주 근무 인원은 자회사 포함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직원들은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허물며 일하고 있다. 서울보다 넓은 업무공간에서는 한라산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갑갑하게 막힌 공간에서보다 사고의 틀이 넓어졌다고 직원들은 이야기한다. 점심시간이면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는 골프, 승마를 즐기는 게 일상이 됐다. 짧아진 출퇴근 소요 시간으로 개인적인 여유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제주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거운 이유다. 이는 제주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제주만이 줄 수 있는 가치다.

제주 이전의 성과와 지역 기여 활동

얼마 전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다음 제주 이전 10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승철 박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다음의 제주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89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42억원, 고용유발효과 2,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매출구조가 분명한 기업 하나가 지역에 유치될 경우, 눈 위를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커지는 이른바 ‘스노볼 효과’로 인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에서 다음의 활동과 성과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간 다음 제주에서는 블로거뉴스(현재 View), 아고라, TV팟 등 주요 서비스가 탄생했고, 검색엔진 개발도 이루어졌다. 제주 이전을 시작하던 2004년의 다음 직원 수와 매출액은 각각 653명, 1,834억원이었지만, 2013년 말 기준 직원 수와 매출액은 각각 1,539명, 5,021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음은 2007년 사이트 운영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이끌어내고 회원들에게 감동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에 100% 자회사인 (주)다음서비스를 설립했다. 현재 다음서비스 제주 근무 인원 450명 중 95% 이상이 제주 현지 채용으로 이루어져 지역 고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다음은 산학협력과 지역공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대학교와 진행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다음트랙'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이 커리큘럼을 짜고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제공하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트랙 이수자의 취업율은 72.7%에 달해 제주대 전체 평균인 52.8%보다 훨씬 높다.

다음이 펼치고 있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은 대표적인 지역 공헌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네티즌이 직접 웹사이트에 올리면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심사하여 후원한다. 2008년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제주 가정위탁청소년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어린이날, 여름캠프, 겨울캠프 등의 행사를 후원하고, 2012년에는 영상미디어교육에 다음 직원들이 자원봉사참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를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창의 IT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다음스페이스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근무환경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올레의 친구기업으로서 2012년에 제주올레 공식 모바일앱을 제작, 기부했다. 제주올레의 상징인 간세인형 전시회를 제주 본사 사옥에서 개최하고 제주올레 이어걷기 행사에 직원 및 가족들을 초청, 올레 정신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 지역 문화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다음은 지난 10년 간 제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녹아 들고 있다.

기업 이전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제주로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이전을 진행 중인 수도권 이전기업은 37개에 달한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 앞으로도 이전

기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많은 기업이 제주 이전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이전기업 지원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두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지방 이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부동산 관련 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지원 대상 토지 또는 건물에 자회사가 입주할 경우 이를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데에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때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자회사를 거느릴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회사는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협업 효율 강화를 위해 동일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자회사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조금의 악용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이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への 추가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자회사 입주가 가능해진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무 인원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강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추가적인 투자까지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악용을 차단하면서도 선의의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절차를 둔다든지, 엄격한 기준 하에 사업계획 변경 등이 가능토록 규정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산통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 감독 권한이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 보조금의 국비 비율이 높다 보니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산통부에 귀속되어 있어 지자체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과 이전기업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규정 상 보조금의 지원, 사후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두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은 중앙부처에 있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권한의 이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전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제주도만의 이전 기업 유인책이 부족하다. 이전기업 지원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산통부 고시에 의한 입지 보조와 시설투자 보조이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 부분이다. 즉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서 제주만의 도드라진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 대비 이전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넷째, 이전기업 지원 체계 일원화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진행한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실질적으로는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을 완료한 어느 기업의 담당자가 불만을 쏟아냈다. 기업 이전 후 이런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는데도 바뀌는 것은 거의 없고, 몇 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제주도와 각 기관의 이전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게 사실이다. 이는 각 사안마다 담당부서가 다르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도 원인이겠으나 더 크게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이전 검토 단계부터 이전 과정, 그리고 이전 후 정착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섯째, 제주도가 IT, BT 산업의 인재 양성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제주도는 IT, BT 산업 육성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전기업 대부분도 IT, BT 기업들이다. 지역 여론은 이전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하다고 불멘 소리를 하지만 실상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를 뽑고 싶어도 쓸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 등 인근의 우수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IT, BT 산업을 보다 빠르게 육성하고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제주 이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관련 학과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매우 성공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평가 받는 다음과 제주대학교의 맞춤형 인재프로그램인 다음 트랙과 같은 사례처럼 이전기업들과

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제주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학과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부탁 드리고 싶다. 간혹 제주 투자기업과 제주 이전기업을 혼동하여 투자기업과 이전기업의 지역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지역 기여도의 기준은 현지 채용 규모와 지역공헌 활동 등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전기업과 투자기업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투자기업은 인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투자기업은 제주라는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반면, 이전기업은 필연적으로 인력 이전과 주거 이전을 전제로 기업의 물리적, 인적 시스템을 통째로 옮겨온다. 또한 제주를 이윤 확보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제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제주 이전기업의 증가는 제주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매출액만큼의 지역 GRDP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제주의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인재들의 역량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되며 그 경험과 역량이 고스란히 지역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전기업이 투자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은 여러모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역시 일정 시점에서의 채용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장의 지역 인재 채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제주에 내려와 지역 내 해당 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산업에 속한 기업이 증가하고 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러한 산업 발전은 당연하게도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과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서히 달성된다. 이전기업은 제주도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제주기업이 된다. 이전 기업의 직원들 역시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한 제주도민이다. 단기간을 놓고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마치며...

다음이 처음 제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심심치 않게 들리던 이야기는 ‘다음이 제

주에서 땅 장사를 하러 내려온다'거나 '다음이 제주도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내려온다'와 같은 근거 없는 추측들이었다. '땅 장사'에 대한 오해는 지난 10년 간의 성실한 제주 이전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이 제주도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제주 이전 과정에서 제주도청 관계자 및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다음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성원은 지금 생각해도 여러모로 감명 깊다.

그러나 금전적인 지원과 혜택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산통부 고시에 근거한 보조금이 전부이며(이는 모든 지자체, 모든 이전기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받는다), 법인세 감면 또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 다음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혜택이 훨씬 적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법인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마저도 제주 근무 인원 비율로 적용되어 실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지 않은 형편이다.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사 이전 시점에 제주 근무 인원이 전체 직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희망자 위주로 점진적인 지방 이동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불가능한 수치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지난 10년 간 제주 이동을 추진해왔고 또 현재도 지속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회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임직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주로 내려오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모두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만의 가치를 통해 다음을 포함한 이전기업들이 제주를 기반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이전기업을 통해 제주가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

